

한국 축산물 위생 처리 협회

협회지 제 63-1호 2003년 5월 1일(목)

제목1: ☑ 축산물위생처리협회 이사회를 2003년 5월 14일(수) 오후2시에 개최합니다.

회원사는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1, 일시 : 2003년 5월 14일(수요일 오후2시)
- 2, 장소 : 축산물 등급판정소 본소내 회의실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 3, 의제 : ① 임원진의 건
② 협회비의 건
③ 도축수수료 현실화 방안의 건
④ 기타 현안
- 4, 발표 : 도축수수료 현실화 방안에 대한 최종안 발표
- 권기정 자문위원 -

제목2: 학교급식법 개정안 '또' 폐기

-국회 교육위 심의계류로... 농민단체 성토

국산 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또 다시 무산됐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권오을 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심의를 계류시킨데 따른 것으로 자동 폐기됐다.

이유는 국산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WTO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학교급식법 개정이 무산되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WTO규정 운운하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의 무책임한 작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성토했다.

한농연은 "안전한 국산 농·축산물을 공급해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은 대통령 핵심 공약사항으로 향후 전개 과정을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국산 농산물의 안전한 수급과 원활한 유통 및 국가 직영 무상급식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차기 회기에서 논의된다"며 "급식법 개정안 통과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체: 한국농어민신문

제목3: 농림부 인사

국제농업국 통상협력과장-서 기 관 안 호 근⇒ 축산물위생과장에 보함.

축산국 축산물위생과장-서 기 관 김 실 중⇒-조직인사담당관에 보함.

제목4: 외국인 연수생 고용 '법인'에도 허용

외국인 농업연수생을 상법상 법인에서는 고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개정, 고용허용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외국인연수생을 고용할 수 있는 대상을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에서 폭을 확대, 상법상 법인, 즉 주식회사라든가 유한회사 등에서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빠르면 이달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 하반기부터는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업규모의 양돈업을 경영하고 있는 법인 관계자는 매우 환영한다면서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개정되어 조속히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발체: 축산신문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협회지 제 63-2호 2003년 5월 1일(목)

제목5: 쇠고기 부분육등급표시제 참여 업체 2개소 늘어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는 쇠고기 부분육에 등급표시를 하여 상장, 경매하는 업체수가 7개소로 늘었다고 밝혔다.

쇠고기 부분육 상장,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분육등급표시 확인을 해 주고 있는 육가공업체는 5개소(금천, 초원농축산, 성우한우유통, 효림축산, (주)도림)이었으나 지난 4월에 2개업체(동양축산, 수원축협)가 추가 참여함으로써 모두 7개소로 늘었다. 2개 업체가 새롭게 부분육상장, 경매에 참여함에 따라 쇠고기 부분육등급표시 물량도 1일 평균 20두로 3월(전월)의 13두보다 53.8% 증가하였다.

쇠고기 부분육등급표시제는 소, 돼지고기의 유통을 지육에서 정육(부분육) 형태로 전환하고 산지도축을 유도하여 환경문제를 해소하며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현재 농협서울공판장, 안양 협신식품과 인천 삼성식품에서 상장, 경매되고 있다.

동제도는 쇠고기 지육이 정육으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등급의 둔감을 방지하여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췌: 축산물등급판정소

제목6: 축분 퇴비화, 지렁이로!

북제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중)가 지렁이의 유기물질 배양능력을 이용한 축분퇴비화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농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북제주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2일 젓소와 한우 등을 30두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렁이를 이용한 축분퇴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부와 서부 각 2농가씩 모두 4농가에 사업비 56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축분퇴비화 사업은 지렁이의 배설물을 이용해 분변토를 생산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경제적 가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제주군농업기술센터는 이 사업으로 분뇨처리 비용이 톤당 9만6250원에서 2만200원으로 79% 절감하고 질소와 인산 등 오염성분도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축분퇴비화 시설을 축산농가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렁이 사육사 시설비 1200만원과 지렁이 구입비 200만원 등 총 1400만원이 투입되며 비용 전액을 북제주군에서 부담한다.

북제주군농업기술센터 김영석 계장은 “대량 발생하고 있는 축산분뇨를 지렁이를 이용,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발췌:한국농어민신문

TEL 031-391-9767,

FAX 031-395-6661

경기도 군포시 당동 424-6 한국축산물가공처리협회

협회 구좌 : 농협 군포 남지점 : 장환달 1104 - 02 - 043981